

신년사로 본 김일성·김정일의 대남인식과 대남정책 비교

이 준 희

글로벌교육문화연구원 수석책임교수

< 목 차 >

I. 서론	1. 김일성·김정일 대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통계분석
1. 연구목적	2. 김일성·김정일 대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관계
2. 연구범위 및 방법	IV. 결론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참고문헌
1. 인식론과 남북관계	Abstract
2. 분석의 틀	
III. 연구결과 및 논의	

Key words(중심용어): 김일성시대(Kim Il-Sung era), 김정일시대(Kim Jung-Il era), 긍정인식(Positive recognition), 긍정관계(Negative recognition), 부정인식(Negative relationship), 부정관계(Negative relationship)

국 문 요 약

이 연구는 북한의 지도자인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분석 결과의 요약은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남한에 대해 부정/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관계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관계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 공히 긍정/부정인식에 무관하게 긍정관계, 부정관계는 증가하는데 김일성 때는 미미하게 발생하는 반면 김정일 때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정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부정인식 때 부정관계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김정일 시대에 긍정으로 인식할수록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념과는 상이한 결과라 하겠다. 또한, 김정일 시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의 상관관계는 양적인 선형관계(0.145)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

시대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0.45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활동적이면서도 대남적대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남북관계시 교류와 협력에 의해 실제적인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공세지향의 대남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방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근본적인 남북관계는 커다란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사업을 우선시하였으며, 관계계선은 공세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대내·외 비난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공세적인 대남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권력승계과정에서 김일성의 대남 적대 의식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더욱 심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I. 서론

1. 연구목적

5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1994)으로 김정일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지 16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물론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영향력이 여전히 절대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수령님의 교시를 몇 백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공표(이태섭 2001, 505)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정일 체제는 아버지 김일성 체제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이라는 체제(국가)의 대표성을 띄고 있다. 그 사례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주석직을 김일성에게 영원히 부여한 채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군림하는 등 비정상적인 특성을 강화시켜왔다. 이 뿐만 아니라 ‘김정일 시대에 대남한을 바라보는 인식과 관계에 있어서도 김일성시대와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북한이라는 체제(김일성, 김정일)의 대남한 인식과 관계를 알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사람들의 호칭을 분석해보면 관계의 정도나 친밀도를 파악할 수 있다. 즉 부르는 호칭을 분석해보면 갈등이나 대립 관계인지 우호적인 관계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존칭어나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상대를 부르는 것과 반말어투의 비하적인 용어로 상대를 부르는 것에는 분명한 인식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상대와 갈등과 대립의 관계이면 호칭 사용에 있어서 가치중립적인 호칭보다는 격한 감정이 섞여있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가치중립적인 용어사용을 할 것이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비하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물론 북한의 대 남한을 지칭하는 용어자체를 북한의 대 남한을 바라보는 인식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귀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북한에서 신년사는 전 주민이 암송해야하는 공식문헌일 뿐만 아니라 신년 한 해의 정책방향을 제시 해 주는 유일한 것으로 북한사회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무리성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남한 지칭용어사용 빈도변화를 대남한 인식변화로 보았다. 한편,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과 관계의 차이는 단순한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이 북한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정치적인 배경의 차이, 성장 환경, 주변 및 국제적인 여건 등의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판단된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이 대남한을 지칭할 때 가치중립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 자체가 긍정적 용어사용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한 관계가 기본적으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읽는 신년사(공동사설)에 가치중립적인 용어사용 보다는 격한 감정의 부정적인 용어사용 빈도가 훨씬 많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대 남한 호칭의 긍정, 부정와 연도별 빈도를 인식변화로 보고 이것이 실제 남북관계(긍정, 부정)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계적 분석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에 남한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를 진단할 수 있는 척도로 삼고자 함이 연구목적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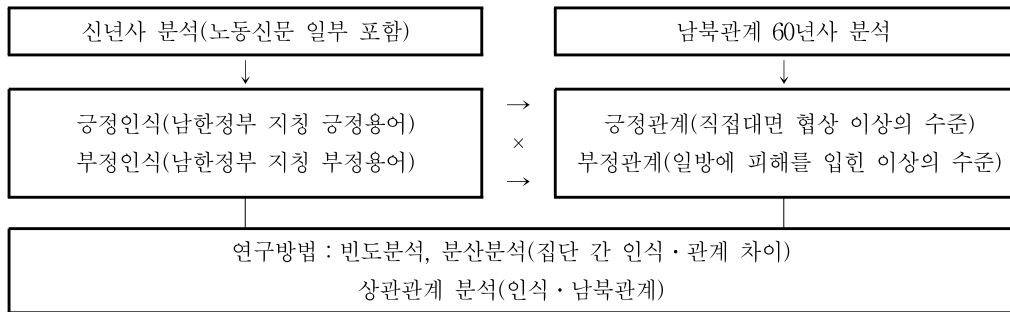
가. 연구범위

북한연구를 위한 실증적인 자료로는 노동신문, 신년사, 북한 중앙방송 당·군·청년보의 공동사설 등이 있다. 그중에서도 「북한신년사」는 연초 국제사회와 남한, 그리고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치 이념과 주요정치를 나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북한사회 전반의 변화를 예측하는 단초를 제공해 준다. 북한 신년사 분석 결과로 대 남한 인식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해방 이후 2010년까지 기간의 신년사를 전수 분석하였다. 『「북한 신년사」는 김일성 사망 직전까지는 「김일성 신년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는 유훈 통치로 인하여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았고 당·군·청년보 공동사설로 대체되었다. 또한 1952~1953년은 축하문, 1954~1955년은 연설문, 1957, 1995~2010년까지는 공동사설로 대체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햇볕정책, 남북정상회담 전후의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보기 위한 신년사 자료가 불과 3~5년의 신년사에 불과하므로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전후 3년~5년간 「노동신문」의 사설을 월별로 분석하여 보완하였다.¹⁾ 또한, 긍정·부정적인 남북관계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북한문제연구소에서 2001년도 발행된 「남북관계 55년사」책자를 참조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남북관계는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백서」부록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참조하였다.

1) 1993~2001년까지 노동신문 「대남 정세분석」을 신년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매월 1회씩 분석으로 표본수가 증가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높였다.

나.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분석문헌(신년사 즉 공동사설)은 일반자료로 분류되어 접근이 용이하였다. 즉, 「북한 신년사」는 1차 문헌자료 확보가 용이하고 매년 유사한 내용을 유사한 형식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북한 신년사」 내용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면 북한의 대 남한 정부인식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다음의 <그림1>은 이와 같은 문헌연구를 포함하는 본 논문의 전체적인 연구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그림 1> 변수선정

이 논문은 표본선정에 따른 오류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고자 전수문헌 분석 방식을 택하였다. 물론 전수분석도 측정 과정상의 오류(measurement error)²⁾는 발생 가능하다. 만일 북한의 대남 호전성을 알기 위해서는 매월 1회씩 노동신문 사설만 분석하여도 알 수 있지만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를 체계적으로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따라서 전수분석에 의한 결과 치를 연결하여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앞서 연구목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논문은 매년 발표되는 신년사 분석을 통해 김일성시대의 대남한 인식과 관계, 김정일시대의 대남한 인식과 관계의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남북관계 변화추이를 예측해 보고자 함에 있다. 이는 남북관계가 변하면 신년사에 대남한 정부지칭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는 다음의 가설로 구체화될 수 있다.

(1) 김일성·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일당독재·일인독재 사회이며, 극소수 정책 결정자, 특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결정이 정책에 직접적이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이다. 따라서 북한 지도자의 교체는 곧 다른 어떤 요소보다도 외교정책 변화의 원인이 될 확률이 높은 요소이다. 실제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이른바 “신외교”의 등장과 함께, 김정일 정권은 이전과 차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즉, 김정일의 카리스마가 아버지 김일성에 비해 상대

2) 전수분석이므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에 대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지만 측정 상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즉 북한 신년사에 나타난 대 남한 정부 지칭용어를 긍정·부정 인식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긍정적인 관계와 공세적인 부정관계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각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유훈통치” 등을 대외적으로 표방하면서, 외교정책을 국내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외교적 수단을 활용한다는 것이다(박재규 1997, 159-163). 이처럼 외교정책과 그 목표가 변화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북한의 대남 인식도 변화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 개인의 특성 및 성격, 성장환경의 차이 등 세습체제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대 남한 정부 이미지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남한정부를 지칭하는 용어를 긍정인식(=가치중립적인 용어)과 부정인식(비우호적 의미의 용어)으로 구분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남한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관은 일종의 국시이다. 따라서 중립적 용어사용을 사용하는 것은 북한 현실에 있어 ‘긍정적 방향’의 변화라 볼 수 있다. 용어표현을 긍정, 부정이나를 구분하는 데는 Buddy의 호의적 비호의적 개념정의와³⁾ 신명순의 「로동신문」이 사용하고 있는 韓國국가지도자 지칭 용어분석 내용⁴⁾ 중 남한정부 지칭 용어횟수 비교를 <표 1>의 내용과 같이 참고하였다.

<표 1> 「로동신문」이 사용한 남한정부 지칭 용어횟수 비교(신명순 외 1992, 213)

구분	1989년 9월	1990년 9월	구분	1989년 9월	1990년 9월
중립적 용어			적대적 용어		
남조선 당국자	216	176	로태우 일당	209	44
남조선 당국	75	30	괴뢰	204	20
현 ‘정권’	20	13	파쏘도당	161	78
로태우 ‘정권’	20	7	남조선 괴뢰	56	60
남조선 ‘정권’	10	6	남조선 괴뢰도당	55	14
당국	9	37	남조선 군사파쏘당	48	5
당국자	6	7	괴뢰도당	45	30
서울 ‘정권’	4	·	로태우 파쏘도당	42	4
이남당국	4	·	로태우 괴뢰도당	26	1
남조선 ‘정부’	4	·	남조선파쏘도당	22	9

3) 호의적 : 사회적 통합과 협조, 그리고 정치·경제적 안정과 힘을 반영한다. 정부를 대표하는 것은 협조적이고 평화를 사랑하며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표현, 비호의적 : 사회적 갈등, 해체 그리고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과 허약성을 반영한다. 중도적(neutral) : 호의적, 비호의적 내용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중도적인 것을 측정(Richard W. Budd, Robert K. Theory, Lewis 1971, 50).

4) 신명순의 분류방식 참고 : 「로동신문」이 사용하는 79종류의 한국정부 지칭 중 중립적인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북한정부를 지칭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남조선 당국, 현 정권, 로태우정권, 서울정권, 이남당국자)등으로 구분한다, 또한 적대적 용어는 한국정부가 합법적인 국가가 아니며 미국의 괴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괴뢰, 일당, 도당, 앞잡이, 통치 배, 무리, 집단)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적대 의미의 강조는 접두어로 파쇼 군부, 독재 등을 쓰며 용어로는 깡패, 반역, 백정, 살인마 등의 용어로 분류하고 있다(신명순 외 1992, 209-210).

현 로태우 정부	4	·	남조선통치배	19	35
기타	8	4	로태우 군파쏘도당	14	5
			군사파쏘도당	13	4
			괴뢰당국	11	32
			남조선 괴뢰당국	7	1
			군부독재'정권'	6	·
			남조선 괴뢰정권	4	·
			독재정권	4	4
			민족반역의 무리	4	·
			파쏘정권	4	·
합 계	380(27.28%)	280(42.77%)	합 계	1,013(72.72%)	372(57.23%)
총 합 계		1989년 9월		1,393	
		1990년 9월		652	

한편, 북한의 대 남한 정부(정권)를 지칭하는 용어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인문사회분야 장교 15명을 대상으로 중립과 부정으로 분류하는 용어분류조사를 실시하여 총 15명 중 11명(비율적으로 73%) 이상 선택을 받은 57개 단어(<표 2>)를 중심으로 부정·긍정 용어를 중심으로 양분하였다. 용어분류조사 결과는 앞서 신명순의 남한정부 지칭 용어분류와 거의 일치하였다. 정권별로 긍정(가치중립용어)인식과 부정인식으로 나누어 빈도를 합산하고 그 분포의 변화를 인식변화로 보았다. 이 방법은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분석으로 판단된다. 연도별로 긍정·부정인식 지수그래프 연결하여 변화 경향을 인식변화로 보았다.

<표 2> 북한 신년사/공동사설(1995~2010)에 나타난 남한정부 지칭 용어표

부 정 용 어		중 립 용 어
이승만 도당	군사파쏘분자들	남조선
반동분자들	리승만 김구 등의 매국 족들	남조선통치자
원수들	박정희집단	남조선 당국자들
괴뢰정부	남조선괴뢰도당	남조선사회
괴뢰반동정권	악당들	남조선공화국
침략자들	반동괴뢰정권	남의 고위급들
적들의	군부독재정권	전두환정부
매국도당들	반동세력들의	남조선측
역도들이	사대매국정권	남조선의 지도급인사들
이승만 역도들	분렬정권	남조선의 여당인사들

그주구들을	파쇼독재정권	로태우정권
남조선통치배	분열주의자들	남한당국자
군사파썸적 통치배	김영삼일당	남조선정권
군사파썸도당	김영삼 괴뢰정권	북과 남의 지도급인사들
괴뢰정권	반통일 매국세력	문민정권
박정희도당	반통일 분열주의 세력	남한당국자
앞잡이들	사대매국세력	북과 남이
깡패들	추종세력들	국민의 정권
괴뢰통치배	남조선 호전분자들	
남조선괴뢰도당		

북한의 대 남한 인식변화와 실제 남북관계(남북대화, 사건)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앞서 북한의 대 남한 인식을 긍정적인 지수(중립용어 사용)와 부정적 지수(부정적인 용어 사용)로 나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긍정·부정적 남북관계로 구분하여 이를 연도별로 지수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긍정적인·부정적인 남북관계의 빈도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북한문제연구소 2001년도 발행 「남북관계 55년사」를 통하여 1945년부터 2001년까지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는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백서」부록 남북관계 주요일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즉 위의 자료를 긍정적 남북관계, 부정적 남북관계의 빈도를 연도별로 나타내어 이를 남북관계의 긍정적·부정적 지수변화로 보았다. 이때 긍정적 남북관계라고 할 수 있는 남북대화와 협상, 부정적 남북관계인 공세적 대남정책의 비중이 사안별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대화와 협상⁵⁾, 공세적 대남정책⁶⁾의 비중은 고려하지 않았다. 인식변화 그래프를 시대별로 나누어 변화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남북관계 그래프도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논의를 해보았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긍정적·부정적 관계에 있어서도 상태나 정도 비교가 아닌 오직 빈도변화를 지수화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호칭변화와 남북관계변화 중 어느 것이 독립변수이고 종속변수인가를 명확히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돌발적으로 전개되는 남북관계의 양상을 명확하게 인과관계로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빈도변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가설을 설정한 바 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T-검정을 통해 냉전/탈냉전의 인식·관계 차이에 대한 유의성을 살펴 보았다. 이러한 통계수치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북한의 대 남한 인식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제사회의 조류 통일정책변화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를 해 보았다. 그리고 「신년사」 분석에 의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55년사」, 통일부 홈페이지의 「통일백서」부록 분석하여 남북관계 변화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대화와 사건들이 남북 사이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를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가 개입될 소지가 많다. 이러한 주관성을 배

5) 긍정관계의 남북대화는 제외수준은 배제하고 직접대면하면서 협상하는 수준 이상으로 분류한다.

6) 공세적 대남정책은 위협정도는 배제하고 실제적으로 일방에 피해를 입힌 수준 이상으로 분류한다.

제하고 남북관계를 긍정적 남북관계, 부정적 남북관계로 구분(평가)하는 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콧(W. Scott)의 Pi Index 산출 공식을 이용하였다. 이 공식을 통하여 상호신뢰도(Inter-coder-Rel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코딩가이드(Coding Guide)를 설정하였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긍정적인 남북관계는 대화 제의 수준은 배제하고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아 직접 대면 협상수준 이상을 채택하였고 공세적인 남북관계는 위협정도는 배제하고 일방에 피해를 입힌 이상의 수준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코딩가이드(Coding Guide)를 3명의 코드인 강성진(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강수민(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기범(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각 긍정관계와 공세적인 대남정책에 점수를 매긴 후에 스콧의 Pi Index 산출 공식을 적용하여 값을 구하였다. 그 결과 Pi 지수는 0.842로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 연구방법은 신년사라는 공식적인 북한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60년간의 연속된 data를 가지고 시계열분석을 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 경향성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연구방법의 한계로서는 공식문헌인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남한정부에 대한 용어사용 빈도를 통해 추론한 대남한 인식과 북한당국의 실제적인 대남한 인식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분석상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측정상의 상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스콧(W. Scott)의 Pi Index 산출 공식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음에도 다소 주관적인 관점이 개진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 기존 연구사 검토

북한에서 발간되는 책자에는 북한의 실상에 대한 언급보다는 체제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실상을 그대로 언급할 경우 북한의 체제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신년사를 비롯한 북한에서 발간물은 국내에서 오랫동안 대외비로 분류되어 접근성도 용이하지 않아 북한 연구의 많은 어려움이 내재해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북한에 대한 기존 연구가 양적 측면에 치중하여 질적인 측면(계량분석)에 대한 연구를 경시한 것에 대한 반성이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기되었다. 즉,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사변적, 연역적 연구보다 실증적 연구 방법을 동원한 방법론적 분석의 틀 정립이 시급한데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실증적 연구가 어렵다(김공렬 1990). 또한, 북한연구방향에 있어서는 분단과 전쟁을 둘러싼 논쟁과 성격 규명에 치중, 정책 결정자의 인지구조와 지향에 관한 연구가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치자의 정책결정의 인지구조와 관련성이 있는 연구가 강조된다.

이처럼 북한에 대한 질적·실증적 연구가 저조한 것은 분단으로 인하여 경험적 자료에의 접근이 어려워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존해 옴에 따라 북한의 행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어려움에 기인되었으며,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으로 북한연구를 학문의 대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국가현실정책의 요구에 따라 수행해 왔기 때문에 학문적 욕구를 충족 못했음을 소치형은 밝히고 있다(소치형 외 2002, 13). 또한, 소치형은 북한 연구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전문연구기관과 연구인력 절대부족, 선전·선동의 자료 확보 등의 연구제작 요인의 상존을 들고 있다. 김용현(2002)은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북한정치변화를 연구하였다. 북한연구의 과학적 시도에 자극을 준 연구자는 안명영으로 1982년 『현대공산주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 이론을 적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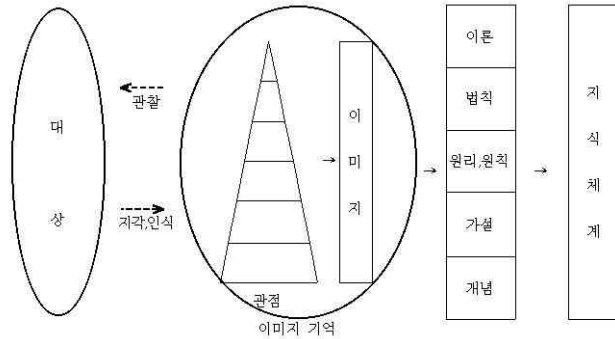
북한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소범영의 신년사 연구(소범영 2002)는 김일성 사후 김정일 정권(1995~2001) 분야별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분야에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내·외 정책전망과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동경의 북한 정책노선의 계량적 분석은 1970년 이후 북한의 정책노선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계량적 방법으로 분석하여 북한정책의 성향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이동경 1991). 즉, 김일성 신년사를 표본으로 내용별 문자수를 조사하여 17개의 내용변수를 선정,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대외인식이 개방정책의 기본 틀과 방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다. 최근에는 강승규(2009)는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남북관계 연구를 지수화 하였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북한의 대남정책과 관련된 6000건의 사건을 국가 간 갈등 협력도를 보여주는 COPDAB(Conflict and Peace Database)의 15단계 분류법에 따라 협력(1-7), 중립(8), 갈등(9-15)으로 지수화하였다. 또한 박용한(2008)은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정요인에 나타난 북한의 대일정책 변화”연구를 통해 김일성과 김정일의 발언 내용이 수록된 선집과 저작집(1945-2003)과 조선중앙통신보도문(2000-2007)에 나타난 대일인식을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매년 통일원에서 「북한 신년사」내용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이들 보고서의 분석초점은 신년사에 나타난 해당연도의 구체적인 정책 쟁점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특정한 기준이나 잣대에 의한 통계적인 분석은 아니다(이태건 2003, 9).

II.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

1. 인식론과 남북관계

가. 인식론

인식(認識)은 사물에 대한 하나의 영상(映像)이 그려지기 바로 직전의 상태이며, 이미지의 초기 단계이다. 다시 말해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여 분별하는 순간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데, 이러한 인식이 모여 하나의 영상(映像)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인식과 이미지를 명확한 개념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사물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인한 상(像)이 뚜렷이 맺혀지기 전의 상태가 인식이며,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불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아래의 <그림 2>에 인간의 인지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특정 대상을 지각하고 인식하면서 관점이 형성되고 형성된 관점은 대상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이미지가 형성되며, 지식체계화가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그림 2> 인간의 인지과정(주창윤 2003, 14)

한편, 똑같은 사물에 대한 인식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색깔에 대한 인식의 차이이다. 똑같은 붉은 색을 바라보면서도 사람에 따라서 떠오르는 상(像)이 제각기 다르다. 붉은 색 자체는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은 물리적, 광학적 현상에 지나지 않지만 빛의 파장의 정도에 따라 다른 색과 구별되어 우리에게 지각되어진다. 예를 들어, 젊은 세대는 붉은 색을 ‘정열’의 상징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이데올로기전쟁을 몸소 체험한 세대는 붉은 색을 ‘빨갱이’ 즉 공산주의로 인식한다. 이처럼 붉은 색의 시각적 인식은 전쟁을 미경험세대는 ‘뜨거운 열정’을 상징하고 경험한 세대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포함하는 메시지인 것이다. 이와 같이 똑같은 색을 바라보면서도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像)이 맺히며 그 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 다른 스펙트럼으로 변하는 것이다.

한편 이미지는 일종의 인식(認識)의 문제(problem of perception)에서 파생되는 것으로 인간에 주어진 자극과 정보를 재구축하는 반응의 결과이다. 이미지란 인간의 심중에 간직된 사물의 형상으로서 사람들은 이를 통해 주변 환경을 인식하게 된다(Kenneth E. Boulding 1956, 97-114).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정보(information)가 획득(既得)한 개념과 신념들의 집락(集落)을 통과함으로써 개개인의 인식(認識)이 이루어지는 데 이러한 인지과정(認知過程)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신념체계이다. 이는 물질적·사회적 환경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정리하고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내어 의미를 느끼게 해준다. 다시 말해 수집된 정보가 인식(認識)의 과정을 거쳐 이미지가 되고 이미지는 매듭으로 엮여져 신념체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인식에 의해 이미지가 형성되고 인식이 변하면 이미지도 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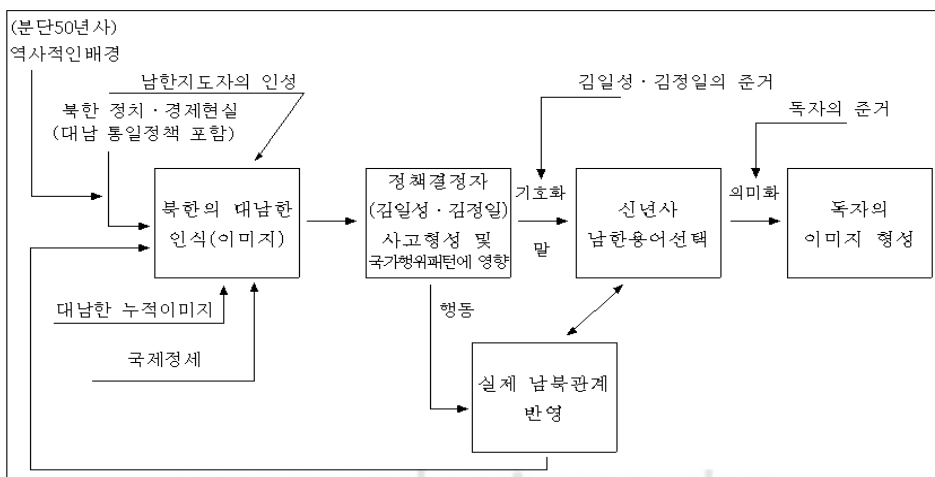
나.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앞서 언급한 인식론을 남북관계와 관련지어 보면 다음과 같다. 한반도 내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두 가지 개념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을 ‘우리’라는 지역적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한반도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있지만 동일한 문화권에서 관습화하는 집단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라는 적대적 개념으로서 ‘우리’와는 대칭되는 개념이다. 이것은 물리

적 힘의 대립관계를 나타내고 분단에 의해 초래된 남북한 간의 갈등적 커뮤니케이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박종수 1991, 279-407). 남북한 간의 갈등은 무력충돌이라는 명시적 폭력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적·이념적 등 다양한 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남북한은 한 개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갈등을 국가 간(inter-state)의 갈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Hans J. Morgenthau 1973, 377). 하지만 그것은 남북한의 과도기적 정치체제이지 고착화된 국가는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양성철 1989, 244). 다시 말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통일방식을 지향하고 실질적으로 2개 국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고착화된 것이 아니라 통일 전까지의 일시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남북한 갈등의 기능적 성격은 군사갈등의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김일성주의화’는 남북한의 갈등차원을 넘어서 문화, 정서적 이질화에 기여한다. 이와 같이 분단에 의한 이질화와 김일성 우상화와 같은 남북한 갈등 요인에 의해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다시 기호(sign)화되어 신년사의 내용으로 나타난다. 기호(sign)화된 남북한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실제 남북관계에서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다음의 분석의 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의 틀(conceptual frame work)

우리나라는 냉전 이데올로기의 주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소에 의해 남북으로 분할 통치를 받았으며, 동족상잔의 6·25전쟁이 발발함으로써 거의 영구적인 분단으로 고착되었다. 이처럼 남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화적인 이질감뿐만 아니라 기존 이미지의 왜곡·심화를 가져왔다. 즉 남북한 간에 상이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정책결정자들의 이미지 형성에 주요변수로 작용하였고 상호 적대적 인식형성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남한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현실(대남통일 정책 포함) 남한지도자의 인식, 국제정세변화, 갈등관계에 의한 대남한 누적 이미지 등이다.



<그림 3> 시간의 흐름에 따른 對 남한 인식(이미지) 변화과정7)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이미지)은 김일성·김정일의 북한정책결정자의 사고형성 및 국가행위 패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형성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은 기존 북한 정책결정자의 준거를 반영, 기호(sign)화되어 신년사의 남한지칭용어로 표현되며, 실제 남북관계에도 반영된다. 이것은 다시 독자의 준거에 의해 의미화된 독자의 인식(이미지)으로 다시 나타나게 된다. <그림 3>은 이와 같은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인식을 신년사를 통해 상징조작하고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탐독케하여 대남 부정적인 인식을 고취시킴으로써 내부통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대남한 인식은 정책결정자의 국가행위에 영향을 미쳐 실제 남북관계에 반영된다. 이를테면 부정적인 대남한 인식은 공세지향의 대남정책으로 추진되며, 시대변화와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 인식이 바뀌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는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정세도 북한의 지도자(김일성, 김정일)의 대남한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연방주의식 통일의 최대 걸림돌이라고 북한은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존재에 대해 북한이 강한 거부감과 함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인식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통미봉남(通美縫南)정책의 일환으로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우리와는 소원(疎遠)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관계의 개선자체보다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조기 차단과 남북관계개선을 북한에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개입에 따른 북한의 대남한 인식과 관계에 미치는 과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부정적인 입장(인식)을 견지하다가도 이처럼 정책결정자의 사고형성과 국가행위패턴은 신년사의 용어선택이라는 『말』과 실제 남북관계반영이라는 『행동』으로 표현되어 진다. 따라서 정책결정자의 사고가 기호화되어진 북한 신년사의 용어선택과 실제남북관계는 상호관련성을 유지하며 둘 중 어느 한쪽을 분석하면 다른 한쪽을 예측할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신년사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를 진단하고자 한 것은 자료 확보의 용이성과 남북관계 분석의 어려움, 즉, 분석상의 효율성 여부에 기인한다. 환원적으로 실제 남북관계는 어떠한 형식으로도든 북한의 대남한 인식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 공세지향의 대남정책을 추진했을 경우 이에 대한 당위성 피력, 책임회피·전가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더욱 부정적으로 대남인식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다시 신년사의 남한정부지칭 부정용어로 표현되어 진다. 이러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신년사 분석을 통해서 남북관계 변화를 설명하는 논리적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7) 이 그림은 존 피스케의 삼각형 모형 그림-1 을 응용하여 북한의 대(對) 남한 인식이 기호(sign)화되고 다시 재생산하는 과정을 묘사한 그림이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김일성·김정일 대남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통계분석

가. 김일성·김정일 대남 인식과 관계의 통계분석

앞에서 ‘북한의 대남 인식과 남북관계는 김일성·김정일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는데, 이 내용은 인식 변화는 부정적·긍정적 인식으로 남북관계는 부정적·긍정적 관계로 세분화되므로 1개의 가설에 연구과제는 4가지로 나뉜다.

<표 3>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

통 계 분 석	정 권	평 균 (집단 통계량)	유 의 확 률
긍 정 인 식	김일성	4.23	.049
	김정일	7	
부 정 인 식	김일성	2.96	.319
	김정일	4.25	
긍 정 관 계	김일성	3.06	.000
	김정일	30.56	
부 정 관 계	김일성	1.45	.000
	김정일	5.50	

(1) 인식의 통계분석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긍정인식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도자별 대남 인식에 있어 긍정인식은 차이가 없고 부정인식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과제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부정인식은 차이를 보이는가? 에서 H_0 (귀무가설)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연구가설)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위의 통계 값을 살펴보면 P값은 $0.319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지 않고 채택되어 김일성, 김정일의 부정인식은 차이가 없으며 김일성 시대의 부정인식 지수의 평균은 <표 3>에 근거하여 2.96이며 김정일 부정인식 지수 평균은 4.25이다. 이러한 결과치만 보아도 대남 인식에 있어서 김일성보다도 김정일 시대에 훨씬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연구과제인 ‘김일성/김정일의 긍정인식은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H_0 (귀무가설)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연구가설)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P값은 $0.049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된다. 따라서 김일성/김정일의 긍정인식은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김일성의 긍정인식은 앞의 <표 3>에 의해 4.23, 김정일의 긍정인식은 7이다. 긍정인식적인 측면에서는 김일성/김정일이 차이를 보이고 있

다.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2) 남북한 관계의 통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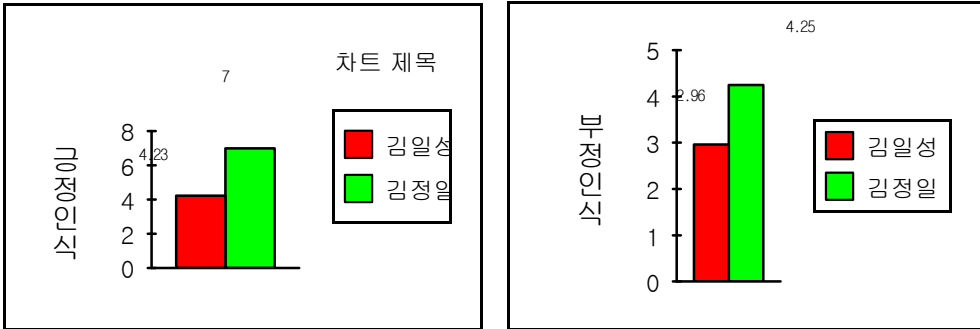
김일성과 김정일의 대남관계의 차이는 긍정·부정관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왔다. 다시 말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긍정·부정관계 모두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연구과제인 ‘김일성/김정일의 부정관계는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H_0 (귀무가설)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연구가설)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P 값은 $0.000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된다. 즉 김일성/김정일의 부정관계는 차이가 있으며, 김일성의 부정관계는 1.45, 김정일의 부정관계는 5.50이다. 통계결과치에서도 부정관계에 있어 김일성/김정일의 차이가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것처럼 평균치에 있어서도 김정일은 김일성(1.45)보다 약 3배 가량 증가(5.50)한 것은 엄청난 것이라 판단된다. 왜냐하면 부정사건(관계) 1건이 긍정관계 10건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과장을 일으킬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부정관계 평균이 3배 늘어난 것은 긍정관계 10배 늘어난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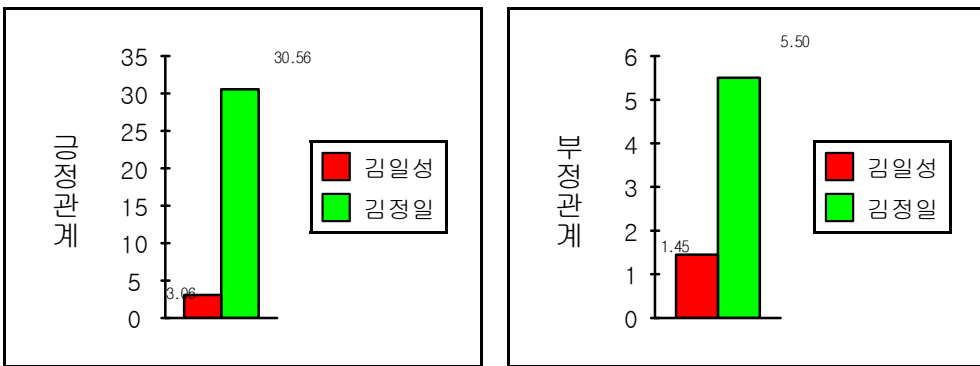
네 번째 연구과제인 ‘김일성/김정일의 긍정관계는 차이를 보이는가?’에서 H_0 (귀무가설) : 차이가 없다는 명제이고, H_a (연구가설) : 차이가 있다는 명제이다. P 값이 $0.0000 < 0.05$ 이므로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연구가설이 채택된다. 다시 말해 김일성/김정일 긍정관계는 차이가 있으며 김일성의 긍정관계는 앞의 <표 3>에 의해 3.06, 김정일의 긍정관계는 30.56이다. 긍정관계도 김일성에 비해서는 10배 정도 증가하였다.

(3) 총 합

통계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994년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김정일이 등장함에 따른 북한의 대남 인식·관계에 있어서 부정 인식은 별 다른 차이가 없지만 긍정 인식, 긍정·부정관계에 있어서 김일성과 김정일은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로 남한에 대해 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관계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관계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부자세습체제로 권력이 이양되면서 대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증가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고 긍정적 인식, 긍정적·부정적 관계가 동시에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김일성/김정일 대남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통계분석 결과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면 아래 <그림 4>, <그림 5>와 같다. 긍정인식과 긍정관계, 부정인식과 부정관계 평균 지수 값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김일성/김정일의 긍정·부정 인식



<그림 5> 김일성/김정일의 긍정·부정 관계

긍정인식은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김일성(4.23)/김정일(7)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긍정관계도 김일성 시대보다 김정일 시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려 10배정도 긍정관계가 많아 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정인식에 있어서는 평균값이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김일성시대 보다 김정일 시대가 남한 정부에 대하여 갖는 부정인식이 조금 높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반면에 부정관계에 있어서는 김일성보다 김정일 시대에 훨씬 부정적인 관계가 많았다. 무려 3배가 증가 되었다. 나이 많은 김일성보다는 김정일 시기에 긍정인식과 긍정/부정 관계를 더 왕성하게 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도 많이 추진한 이면에 부정적이고 공세적인 정책도 많이 자행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정일 시기에 북한이 더욱 도발적인 속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김일성보다 긍정관계가 10배 정도 많았지만 부정관계가 3배 정도 많아진 것은 북한이 대남 관계에 있어서 긍정관계와 부정관계를 이원화시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긍정인식이 높아지고 긍정관계도 훨씬 더 증가한다면 부정관계가 줄거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반해, 자료 분석 상 부정관계가 대폭 증가한 것은 북한이 대남 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관계개선과는 별개로 공세적인 대남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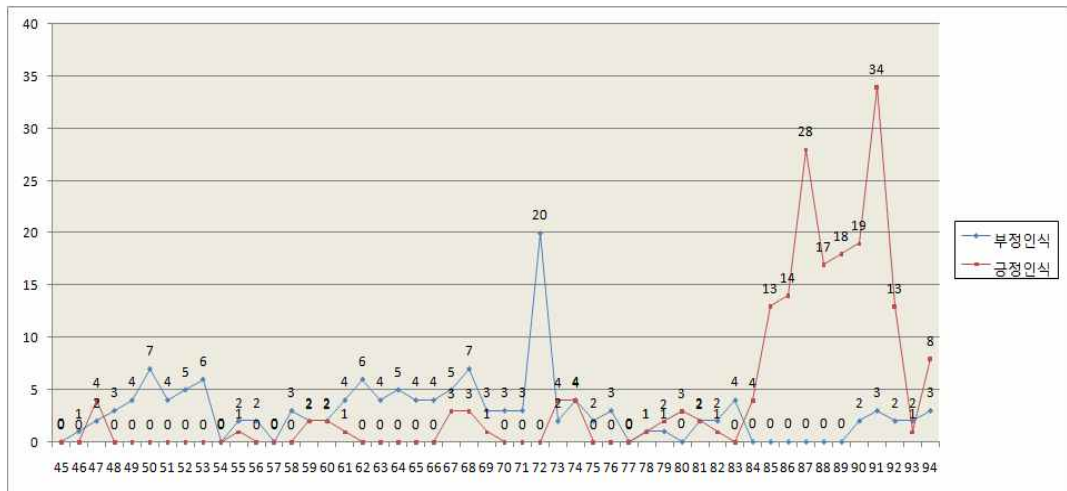
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김일성·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그래프)

(1) 김일성·김정일 대 남한 인식(그래프)

(가) 김일성의 대 남한 인식(그래프)

아래의 <그림 6>에서 김일성의 대 남한 인식이 1946년부터 1960년대 후반까지 긍정용어 사용 빈도가 커다란 변화(차이) 없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정권이 탄생된 이후로 1960년대 후반까지는 대 남한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부정적인 용어 사용은 긍정적인 용어 사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남조선’, ‘남조선 당국’과 같은 가치중립적인 용어보다는 ‘괴뢰집단’, ‘원썬’와 같은 감정이 섞인 부정적 호칭을 많이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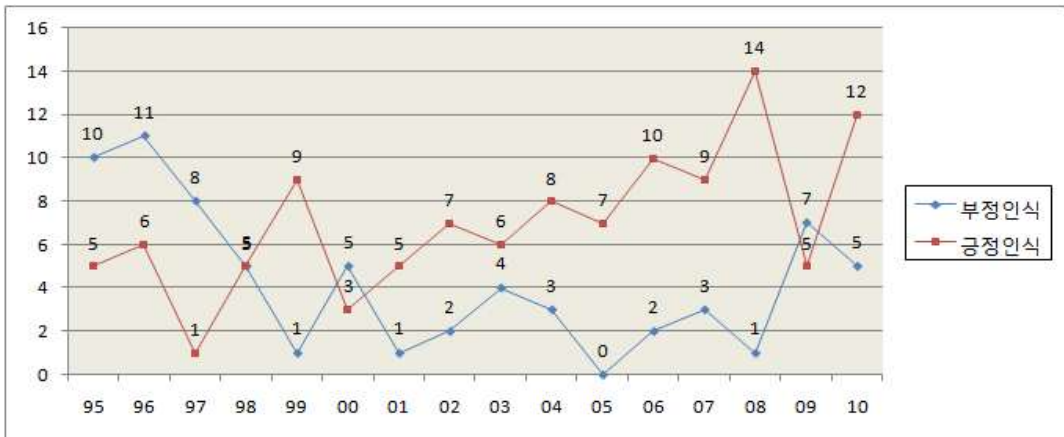


<그림 6> 김일성의 대 남한 인식 변화(그래프)

즉, 해를 거듭할수록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1972년도를 기점으로 부정적인 용어 사용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1985년부터는 긍정적인 용어(남조선, 당국자) 사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김일성의 대 남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다가 1970대 중반부터 긍정인식과 부정인식 차이가 거의 없는 중립적인 성향을 나타냈고 1980년대부터는 긍정인식으로 급격하게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85년부터 긍정인식이 김일성시대 전반부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긍정인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인식도 85년부터 88년까지 거의 소강상태를 보이다 89년부터 김일성 사망 직전인 94년까지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그래프)

위의 <그림 6>을 근거로 해서 김일성 시대 후반인 1980년대 초부터 1994년까지 부정적인 용어 사용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긍정적인 용어 사용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림 7>에 의해 대조적으로 김일성이 사망한 1995년 이후로는 부정적인 용어 사용횟수가 증가하며 긍정적인 용어 사용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7> 김정일의 대 남한 인식 변화(그래프)

즉 김일성 시대 후반에 긍정인식 지수(=대 남한 정부 지칭용어에 중립적 용어 사용빈도 많음)가 높은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으나 김정일 시대 초반인 (1994년-1998년)에는 이러한 경향이 역전되어 긍정적 인식은 크게 둔화되고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김일성 사망(1994)이후에 북한이 남한에 조문단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영삼 정부가 이를 거절하자 이때부터(1995년 신년사) ‘반동세력’, ‘적들의 도발책동’, ‘남조선 통치배’와 같은 부정적인 용어를 거침없이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98년도를 기점으로 긍정·부정인식이 재역전되어 이후 2008년까지 긍정인식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09년부터 감소 및 둔화되고 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햇볕정책을 추진으로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5일) 등의 각종 대북 유화정책에 기인하여 공동사설에 긍정적인(가치중립) 용어사용이 많아졌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유화 일변도의 대북정책과는 차별화하는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표출하고 긍정용어 사용빈도가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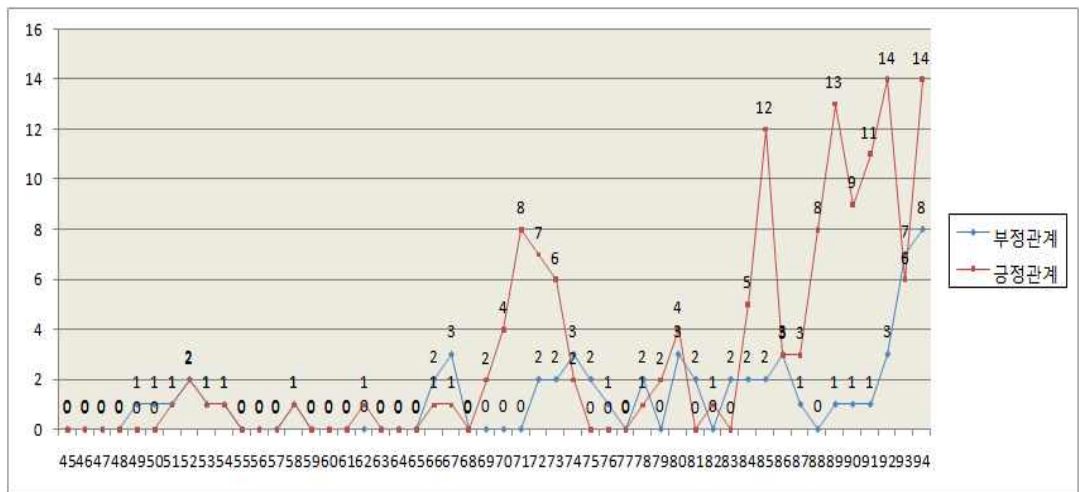
(2) 김일성/김정일의 대남한 관계(그래프)

분산분석 결과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남북한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7.770, p=.000$). 즉 김정일 시대에 긍정적인 관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평균증가 : 3.06 → 30.56) 양 시대에 부정적인 관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0$)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부정사건 1.45 -> 5.50). 부정 관계가 무려 3배나 늘었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가 긍정관계도 많이 증가하였으며, 부정관계도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 김일성의 대 남한 관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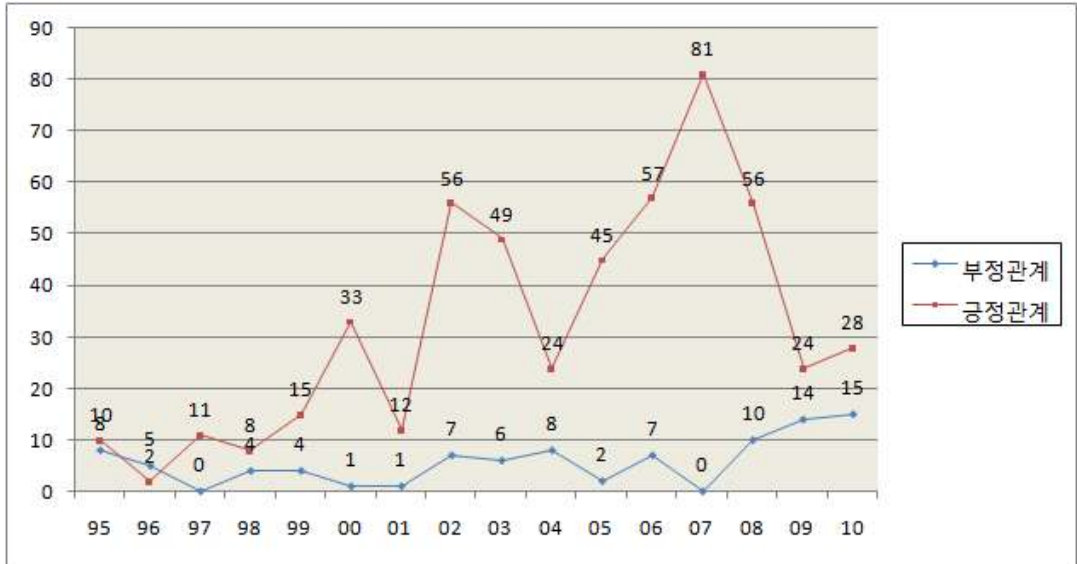
김일성의 대 남한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아래의 <그림-8>에 의해 1946년부터 1960년대 말까지 평균지수가 2미만으로 소강상태를 보여 왔지만 1970년대에 진입한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는 긍정적인 관계의 빈도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도 긍정적인 관계지수 빈도가 5이상 14로 매우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김일성의 대 남한 관계 변화(그래프)

김일성 시대의 부정적인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변화 추세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관계가 급격하게 증가할 때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사라지거나 감소추세를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실제적으로는 긍정적인 관계증가 추세와는 별개로 부정적인 관계를 추진 해 오고 있다.(1988년부터 1994년까지 긍정/부정관계 증가추세)

김일성의 대 남한 인식과 대 남한 관계(그래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김일성의 대 남한 긍정적 인식의 변화 추세와 긍정적인 남북관계 변화추세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부정적인 대남 인식변화와 부정적인 남북관계도 다소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부정적인 남북관계가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더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지만 긍정적인 인식이 높고, 긍정적인 관계가 증가되어도 그로 인해 부정적인 관계가 줄어든다고는 판단할 수 없다.



<그림 9> 김정일의 대 남한 관계 변화(그래프)

(나) 김정일의 대 남한 관계(그래프)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1994년 이후 북한에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군부를 완전히 장악했던 1996년부터 김정일 시대의 남북 관계는<그림 9>에 의해 긍정적인 관계가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김일성시대 후반의 긍정관계 그래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정도면에서 훨씬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1년(12), 2002년(56), 2006년(57), 2007년(81) 등 과거 김일성시대와는 증가 면에 있어서 차별화되고 있다. 이것은 탈냉전시대의 화해와 협력의 조류와 함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과 대북 유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에게 더욱 관심을 끌게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긍정관계가 증가하는 만큼 부정관계 빈도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큰 폭으로(김일성 시대 평균 3.06에서 김정일 30.56) 증가하는 추세로 보아 부정적인 관계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남북관계가 끊이지 않고 자행(1.45-> 5.5)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은 회담을 제의하고는 수시로 회담제의를 거부(1995년 2월 6일 남북 고위당국자회담)하는 통상적인 행패를 부리는 것은 물론이고 강릉 해안으로 북한 잠수함 침투(1996년 9월 18일), 동해안 북한잠수정 침투(1998년 6월 22일), 북한 장거리미사일 ‘대포동 1호’ 시험발사(1998년 8월 31일), 남북 해군함정 서해교전(1999년 6월 15일)이 발생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2002년에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남북교전(6월 29일)이 발생되었다. ‘04년 북한 미사일 1기/지대함 유도탄 미사일 동해상발사(2월 24일/3월 10일), 8,000여대 폐연료 봉에 대한 재처리 성공 발표(10월 2일), ‘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북한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7월 11일), ‘09년에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4월 1일), 북한 제2차 핵실험 강행(5월 3일), 대청해전 발생, ‘10년에는 천안함 폭침사건(3월 26일)과 연평도 포격도발사건(11월 23일)을 발생시

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46년부터 지금까지 긍정관계 증가와는 별도로 부정적인 사건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 북한은 양면적인 속성을 여실히 잘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미루어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남북 관계 시교류와 협력에 의해 실제적인 남북관계개선보다는 공세지향의 대남사업에 역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에는 많은 교류와 협력이 있었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북한은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공세적인 대남 사업을 우선시하며 관계개선은 부정관계(대남도발) 추진에 따른 대내·외 비난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공세적인 대남사업을 이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도발로 인해 국제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거나 부정적 인식이 심화될 때에는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어김없이 남북대화를 제의 해 왔는데,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이 발생한 다음날 남북대화를 제의를 해왔다. 이러한 현상은 남북대화 재개나 관계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우리와는 상호 배치되는 것으로 남북한 간에 수많은 교류와 대화, 이산가족 상봉, 적십자회담, 정상회담 개최해도 실질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못하고 한계에 부딪히는 근본요인이라 생각된다.

2. 김일성·김정일 대남 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관계

가. 김일성 시대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관계

먼저 김일성 시대의 대 남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 시대의 긍정인식과 긍정관계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인 선형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는 매우 큰 것(.641)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긍정인식이 높아질수록 긍정적인 관계가 매우 크게 증가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00<0.05$).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남북관계는 아래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인 선형관계(0.015)를 나타내지만 강도는 뚜렷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P=0.919> 0.05$). 또한 이것은 부정적인 인식이 높으면 부정적인 남북관계가 발생하지만 정도가 거의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표 4> 김일성 시대의 인식 vs 관계의 상관관계⁸⁾

인식	관계	긍 정 관 계	부 정 관 계
	긍 정 인 식		0.641 (0.000)
부 정 인 식		-0.072 (0.623)	0.015 (0.919)

8) 값 : Pearson 상관계수, () 안은 유의확률

김일성시대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위의 <표4>에 의해 양의 상관관계(0.125)를 나타내고 있으며(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0.391 > 0.05$) 부정인식과 긍정관계는(-0.072) 나타내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0.623 > 0.05$). 부연 설명하면 긍정인식이 높아지면 부정관계도 증가하고 부정인식이 증가하면 긍정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정일 시대의 대 남한 인식과 남북한 관계의 상관성

김정일 시대의 대 남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 시대의 긍정인식과 긍정관계는 <표 5>에 의해 양적인 선형관계를 나타낸다. 강도는 뚜렷한 것(0.386)으로 나타난다(단,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면 긍정적인 남북관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에 대해 가치중립적인(긍정)인 용어를 많이 쓰면 긍정관계도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시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의 상관관계는 양적인 선형관계(0.145)를 나타내고 있으며,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0.455)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0.077 > 0.05$) 부정인식과 긍정관계는 <표 5>에 의해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0.544)를 나타내고 있다(통계적으로 유의함. $0.029 < 0.05$).

<표 5> 김정일 시대의 인식 vs 관계의 상관관계⁹⁾

인식	관계	긍정관계	부정관계
	긍정인식		0.386 (0.140)
부정인식		-0.544 (0.029)	0.145 (0.591)

이를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김정일 시대에는 긍정인식이 증가할수록 긍정관계와 함께 부정관계도 늘어나는 것을 보여 주고 부정인식이 커지면 긍정관계가 크게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다. 앞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의 상관관계 분석에 있어 긍정·부정 인식과 긍정적인 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부정관계가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긍정·부정인식과 부정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일성/김정일 시대 공히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표 5>에 의해 양의 상관관계(김일성 0.125, 김정일 0.455)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긍정인식이 높아지면 김일성, 김정일시대 공히 부정관계가 증가하는데, 특히 김정일 시기에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부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김일성 시대의 경우 양적인 선형으로 강도는 미약(0.015)한 반면, 김정일 시대의 경우 양적인 선형관계(0.145)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의 다소간

9) 값 : Pearson 상관계수, () 안은 유의확률

의 차이를 엿볼 수 있다.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공히 긍정인식, 부정인식과 무관하게 부정관계는 증가하는데 김일성 때는 미미하게 발생하는 반면 김정일 때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정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부정인식때 부정관계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념과 일치하지만 긍정으로 인식될수록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다시말해 긍정적으로 인식될 수록 긍정관계는 증가하지만 부정관계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임에도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IV. 결 론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한 인식변화와 남북관계, 그리고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T-검정의 통계분석결과 김일성과 김정일 간에 대남한 부정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고 긍정인식, 긍정관계, 부정관계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김정일 시대가 김일성시대에 비해서 긍정/부정인식 공히 증가되었지만 부정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다. 또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남북한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t=-7.770$, $p=.000$). 즉 김정일 시대에 긍정적인 관계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평균증가 : 3.06 → 30.56) 양 시대에 부정적인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p=0.000$)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부정사건 1.45 → 5.50). 부정 관계가 무려 3배나 늘었다. 이것은 김정일 시대가 긍정관계도 많이 증가하였으며, 부정관계도 크게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김일성보다는 김정일이 남한에 대해 부정/긍정적인 용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긍정적인 관계도 많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정적인 관계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 공히 긍정/부정인식에 무관하게 긍정관계, 부정관계는 증가하는데 김일성 때는 미미하게 발생하는 반면 김정일 때는 매우 두드러지게 부정관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부정인식때 부정관계가 증가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지만 김정일 시대에 긍정으로 인식할수록 부정관계가 크게 증가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북한의 이중적인 속성을 통계적으로 밝혀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김정일 시대의 부정적인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의 상관관계는 양적인 선형관계(0.145)를 나타내고 있다. 김정일 시대 긍정인식과 부정관계의 상관관계는 매우 큰 양의 상관관계(0.455)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김정일이 김일성보다 훨씬 활동적이고 더욱 공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미루어 하나의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은 남북 관계 시교류와 협력에 의해 실제적인 남북관계개선보다는 부정관계에 역점을 두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해방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남북한 간에 많은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왔음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진행하면서 북한은 공세적인 대남 사업을 우선시하고 관계개선은 공세적인 정책추진에 따른 대내·외 비난을 해소시키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꾀하고자 했다면 대화를 하면서도 공세적인 대남사업을 이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 김일성, 김정일 부자는 말과 행동이 따로 움직였

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김부자는 공히 긍정인식이 증가될 수록 긍정관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남도발(부정관계)을 부자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자행하였기 때문이다. 정도 면에 있어서도 김일성에 비해 김정일의 말과 행동이 크게 일치하지 않는 면이 많다. 결론적으로 김정일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속성을 그대로 답습하면서도 남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부정관계를 더욱 증가 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논문은 북한의 신년사에 나타난 남한정부에 대한 용어사용 빈도를 통해 추론한 대남한 인식과 북한당국의 실제적인 대남한 인식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확보의 어려움으로 한계가 많은 북한연구를 신년사라는 북한의 공식적인 북한의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60년간의 연속된 data를 가지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북한 연구 계량화를 시도하였음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곽태환 외(1999).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 서울 : 경남대학교 출판부.
- 국방대학교 편(2010). 『2011년도 안보정세 전망』.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기무라 미쓰히코(2009). 『북한의 군사 공업화』. 차문석 역. 서울 : 미지북스.
- 김공렬(1990). “북한의 공공관료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용현(2002).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정치변화 연구 : 1945-1950.”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연구.
- 강승규(2009). “탈냉전기 남북한 갈등과 협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상태(2001).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서울 : 백산서당.
- 민병천 외(2001). 『북한학 입문』. 서울 : 들녘.
- 북한문제연구소 편(2001). 『남북관계 55년사』. 서울 : 북한문제연구소.
- 박용한(2008).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결정요인에 나타난 북한의 대일 정책 변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규(1997).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 서울 : 나남.
- 박종수(1991).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서울 : 방송과문화.
- 소범영(2002). “북한 김정일의 대내외 정책변화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논문.
- 소치형 외(2002). 『북한의 이해』. 서울 : 건국대학교 출판부.
- 송중환(2002). 『북한 협상행태의 이해』. 서울 : 오름.
- 신명순 외(1992). 『남북한 통합론』. 서울 : 인간사랑.
- 안보문제연구소(2011). 『통일로』. 서울 : 안보문제연구소.
- 유호열 외(2001).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서울 : 을유문화사.

- 육군사관학교(편)(2003). 『북한학』. 서울 : 박영사.
- 윤영관·신성호(2009).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서울 : 한울.
- 윤해수(2002). 『북한국제외교론』.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이규완(2002). 『이미지 삼국지』. 서울 : 들녘.
- 이동경(1991). “북한 정책의 계량적 분석.” 국방대학교 안보보장학 석사논문.
- 이숙자 편(2000). 『21세기 북한』. 서울 : 나남.
- 이온죽(1989). “북한사회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분석.”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8권. 제1호.
- 이태건 외(2003). 『21세기 북한학 특강』. 서울 : 인간사랑.
- 이태섭(2001). 『김일성 리더쉽 연구』. 서울 : 들녘.
- 이택휘 외(2001). 『남북한의 최고지도자』. 서울 : 백산서당.
- 임영태(1999). 『북한 50년사』. 서울 : 들녘.
- 장성민(2009). 『전쟁과 평화』. 서울 : 김영사.
- 전인영(2001).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전략.” 극동문제연구소 편. 제19차 통일전략포럼.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정봉화(2000). 『대결에서 공존으로 : 북한대남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 : 한울.
- 함택영 외(2000). 『김정일 체제의 역량과 생존전략』. 서울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황성철(2008). 『북한의 한국전 전략』. 서울 : 북코리아.
- Hans J. Morgethau(1973). *Politics Among Nation*. New York : Knopf.
- Kenneth E. Bounding(1956). *The Image : Knowledge in Life and Society*. Ann Arbe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Pyeong-gill choi(1975). “The Nation-building Process and Administrative Development in North Korea.” ph. D. dissertation, Syracuse University.
- Richard W. Budd, Robert K. Theory, Lewis(1987). *Content Analysis of Communication, 3dr, rev.* N. Y : Macmillan Co.
- Stephen J. Flanagan and A. Schear(2007). *Strategic Challenges : America's Gloval Security Agenda*. Washington, DC NDU Press.

Abstract

Recognition and policy of Kim Il-Sung·Kim Jung-Il toward South Korea through New Year speech analysis

Lee June Hee*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possibility of further change in North Korea, by looking at how much there has been a change in North Korea perspective on South Korea as the 'Kim Il-sung era' has turned into the 'Kim Jung-Il era' and how much there has been a change on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hip.

Abbreviation on analysis, Kim Jung-Il, rather than Kim Il-Sung has used positive/negative vocabulary on South Korea a lot and also there has been in not only a positive relationship but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ndicates that a lot of negative relation cut a conspicuous figure in 'Kim Jung-Il era', rather than 'Kim Il-Sung era' though it has increased positive/negative relation not concerned with positive/negative recognition. Especially, it is not convincing that we could recognize it the more positive, the more negative relation. So, these results are not consistent with usual thoughts. Also, Interrelationship analysis of 'Kim Jung-Il era' on negative recognition and negative relationship shows us plus linear relationship (0.145). Interrelationship analysis on positive recognition and negative relationship show us much more plus linear relationship (0.455). Putting these various analysis together, Kim Jung-Il is more dynamic and has more hostile attitude toward South Korea than his father, Kim Il-sung.

Summing up these objective analysis, this will come to the following tendency that North Korea has taken aggressive action toward South Korea through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rather than actual improvement between them. From national liberation to this day, fundament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not changed a lot inspite of a number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 Researcher Chief Responsibility, Global education culture

between them. Instead, North Korea take aggressive bussiness action preferentially during South and North Korea relationship and improvement of relationship is used to clear up internal-external criticism just like an expediant accompanied by aggressive state undertakings related to South Korea. If North Korea had wanted to improv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incerely, they didn't aggressive state undertaking toward South Korea having talks. In conclusion, Kim Jung-II has succeded like that and also deepend hostile consciousness of Kim Il-Sung during succesion of authority.

■ 논문 투고일 : 2011년 7월25일, 논문심사일 : 2011년 8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1년 8월 18일